



# 윤회를 알고싶다면 티베트로 가라



뷰티풀 티베트여행

이태훈 지음  
다름세상 1만6천원

하늘을 향해 투박한 손을 치켜들며 '오체투지' 하는 티베탄.

하늘아래 첫 동네인 티베트는 여행자들 사이에 발 한 번 디디기에 까다로운 곳으로 통한다. 직항로도 없거니와 땅이 척박해 이동수단도 힘들고 더욱이 중국 공안의 허가증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티베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4천미터 고지에 위치한 티베트, 라다크, 네팔에 살고 있는 '티베탄(티베트인)'들을 만나러 간다. 물론 여행자들은 방문할 때 제각기 여러 목적을 갖겠지만, 굳이 공통점을 말하자면 오지의 척박한 땅에 사는 티베탄들의 진한 삶의 향기에 이끌려 온다는 것이다.

<뷰티풀 티베트 여행>을 쓴 저자 이태훈(스포츠투 서울 기자)도 이런 이유로 티베탄들이 있는 티베트와 라다크, 네팔로 향했다. 저자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티베탄들이 이생(生) 자체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수행과정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책 속에 사인, 사진 속에 사람이서 죽음을 생각한다. 이 티베탄들의 표정은 어찌 이토록 맑고 환하며 평온한 것인가. 티베탄들의 아름다운 '살인미소'에 이 나라들을 직접 가보지 않은 독자들마저 말없이 고개 숙이게 만든다. 아마도 윤회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그 답은 여기에 있다. 일

상과 한품인 종교, 두 팔꿈치와 두 무릎과 머리를 땅에 대는 '오체투지'로 부처 앞에 나아가는 저 승고한 의식에서 윤회는 구체적 실천으로 잡힌다. 지은이의 여행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소개돼 있는 티베트, 라다크, 네팔을 요약했다.

### 삶에 스며있는 느낌...여유...

#### #1 티베트

티베트에 새벽이 찾아오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마치 안개처럼 거리를 메운다. 또한 티베탄의 정신적 지주인 조카사원 앞은 '옴마니반메후'를 읊조리며 마니차를 돌리며, 오체투지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무엇이 이들을 독실한 불자로 만든 것일까?

티베트 불교는 님파파, 카구파, 사카파, 게룩파 등 크게 4종파로 나뉜다. 이들 종파는 선의의 경쟁을 하며 티베트 불교를 발전시켰다. 인도에 망명한 17대 카르마파는 님파파의 수장이고, 14대 달라이라마는 게룩파의 수장이다. 정교함일,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연결돼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실권자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독특한 정치구조 속에서 달라이라마는 곧 티베트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이 생에서 쌓은 업(業)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속에서 하루하루 영혼을 맑게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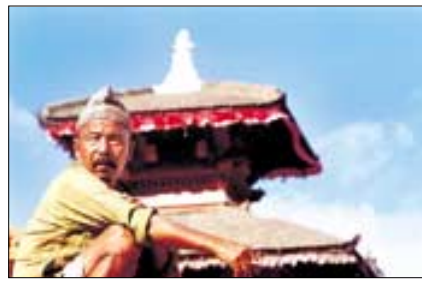
화시키면서 살아가는 티베탄의 삶은 거북이 등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느림과 여유로 무장하고 있다. 흑한과 초라한 집과 맞가지 짝인 먹거리에도 불구하고 티베탄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두려움도 욕심도 없다. 이런 순수한 열정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오체투지를 가능케 한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의 침략으로 시장이라는 중국의 한 자치구가 됐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국말을 사용해야 하고, 티베트어는 마치 외국어처럼 배우는 슬픈 현실을 안고 살아간다. 또한 티베탄의 정신과 행동은 티베트 불교를 파괴하려는 중국의 감시 속에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 불심으로 가득한 공동체

#### #2 라다크

지금은 인도에 속하는 라다크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던 번성했던 왕국이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티베탄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라다크는 수도였던 '레물' 중심으로 '곰파'라고 불리는 사원들이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티베트의 사원들과 별 차이는 없지만 대부분이 산마루나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이 다르다. 고지에 다다르다 고산들로 둘러싸인 라다크는 기후가 혹심하고 자원이 또한 빈약하지만 천년 이상의 삶



왕궁을 배경으로 서 있는 네팔인(사진 위), 조카사원 옥상에서 본 달라이 라마의 거룩궁전인 포탈궁.

을 이어왔다. 그 힘은 바로 공동체적인 삶에 있다. 그래서 라다크는 가난하지만 거지와 도둑이 없고, 시기, 질투, 성냄, 이기주의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작은 티베트' '서쪽의 티베트'라는 별칭처럼 티베트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부처를 향한 불심이 마음을 가득 메운다.

### 중세도시엔 온듯 착각 일으켜

#### #3 네팔

네팔은 히말라야의 8천미터급 고봉 14개 중 9개가 있는 고산의 나라다. 16세기 중 동(東)티베탄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들어오게 됐다. 네팔에는 세르파족들이 많은데 해발 4천미터에 살고 있는 세르파 마을 풍경은 마치 우리 시골같다. 주식은 쌀과 감자며, 쟁기와 소로 밭을 갈고, 장손이 부모를 모신다. 계다가 남아선호사상도 뿌리가 깊다. 또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범법행위를 하면 곧바로 마을에서 추방당한다.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는 여러 종족이 모여 살고 있으며, 네팔의 국교인 힌두교 사원이 많다. 또한 몽키사원이라 불리는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도 만날 수 있다. 이 불교 사원 내부에는 힌두사원도 함께 있어 네팔의 독특한 사원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카투만두 곳곳에는 오래된 왕궁과 사원들로 가득차 있어 중세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하얀 만년설의 위용을 엿보던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산. 오른쪽 사진은 라다크의 체모포파.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일의 즐거움

다나카 고이치 지음 / 하연수 옮김  
김영사 / 9천9백원

2002년 노벨상위원회는 화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평범한 셀러리맨인 다나카 고이치를 선정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급물결을 타고 일본인은 물론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과거 수상자들의 화려한 이력에 견주어 다나카는 너무도 평범한 소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수상 소식을 전해 들은 다나카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일로 다나카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고 이후 반년 동안 그의 생애 중 가장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 후 연일 계속되는 강연과 인터뷰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어 지난해에는 엔지니어 복귀를 선언해 또한번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일의 즐거움>은 화학출신이자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의 자서전이다. 이 책에는 한 기업의 말단 연

### 일상을 확 바꾸는 화두 '도전'

#### 노벨화학상 받은 日 셀러리맨의 자서전

무원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연구원으로 일하던 보람, 다나카 자신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나오는 원천 등을 담았다. 또 노벨상 수상에 이르기까지의 활동 경위와 그 발견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다나카의 성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취직 시험에서도 떨어진 약간의 인물이지만 자신이 너무도 좋아하는 실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즐기며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업적을 추켜 세우는 세인들에게 다나카는 이 책에서 '독창적인 능력은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대학에서 전기공학 전공한 그는 시마즈제작용의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질량분석'이라는 화학실험에 몰입하게 된다. 다나카는 우연찮게 분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소프트 레이저 이온화법'을 개발한다. 그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빛을 '필연'이었다. 또한 자신의 위치나 승진에 대한 명예욕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던 것도 성공의 비결이었다. 여기에 설혹 이상한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식에 얽매이거나 그 결과를 놓치지 않는 겸손한 연구정신도 쾌거에 일조했다.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나에게 이 책은 새로운 도전정신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다나카가 남긴 "나는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웠다. 40대가 된 지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즐거운 경험"이라고 털어놓는 이 문구를 회사 책상 앞에 붙여 놓으며 내 자신을 가다듬었다.

■ 안서정 (6나로통신 고객영업부 팀장)

##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 지키는 금강염주

###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받거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 등이 발생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이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 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빛이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일무야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문 상담을 받으시면 우체국 통기소포로 전국 어디든 받아 점안할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구 관동동 177 대원 B/D 406호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 빛이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에게 보시 또는 본인이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 지체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연분을 찾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루병중인 분
-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부처님게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십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주면 판매 합니다.

##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이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도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점 모집